

전래동화 그림책에 나타난 가난 모티프의 인성 교육적 함의

The Humanistic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Motif of Poverty in the Picture Books of Korean Fairy Tales

이란, 현은자, 이현정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Ran Lee(iran370@hanmail.net), Eunja Hyun(hyunej1@skku.edu),
Hyunjung Lee(qangle@naver.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난을 모티프로 다루고 있는 전래동화 그림책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현 시대의 인성 교육적 가능성을 찾고 그 교육적 함축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 3인은 가난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는 전래동화 그림책 7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 공통된 서사구조 속에서 가난과 재물의 문학적 역할을 도출한 후 그 인성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내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인공의 가난이 개인적인 게으름 같은 부정적인 성품보다는 주로 선한 성품과 관련되어지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형성했다. 둘째로, 신적인 조력자나 동물 조력자들이 비현실적 방식으로 선인에게 재물을 제공함으로써 성품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셋째, 선인에 뒤이어 악인들의 악한 성품이 부각되는데 주로 재물에 대한 탐욕이 증거로 나타났다. 악인 대부분은 그 악한 동기가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되며 선인과의 이항대립 구조 때문에 권선징악의 교훈을 뚜렷이 드러나게 한다. 넷째, 대부분의 가난 모티프를 가진 전래동화는 각 인물이 가진 성품에 기초하여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았다. 그러한 보상이 재물로 주어짐으로써 재물 소유 자체는 축복임을 드러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인성 교육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 중심어 : | 전래 동화 | 가난 | 재물 | 인성 교육 | 교육적 함의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ossibilities of humanistic education through text analysis of the picture books of Korean fairy tales dealing with poverty and to discus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his, the two researchers drew the literal roles of poverty and property in the common narrative structure of seven subject books and discussed the humanistic educational implica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overty of a main character was related to good personalities rather than negative personalities such as indolent disposition and formed affirmative values. Secondly, divine existence or animal helpers offered property to the good man in a unrealistic manner so that it emphasized the meaning of reward on their good nature. Thirdly, the bad character of wicked men following the good men was focussed on and their greed for property was the evidence of their wickedness. Most of them were punished because of the wicked motive so that it apparently highlighted the lesson of the good triumphing over the evil by the binary opposition structure. Fourthly, all the fairy tales made the characters treated based on the each personality: punishment or reward. However, the reward was usually property so that the property itself was depicted as a kind of blessings. Based on those findings, some humanistic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keyword : |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s | Poverty | Property | Humanistic Education | Educational Implications |

I. 서론

문학의 본질에 충실한 문학연구란 인문학의 본질에 충실한 연구라 할 수 있다[1]. 인문학은 인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인간과 삶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을 본질로 삼으며 현재의 시공간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인간성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아동 교육에도 중요한 물질만능주의와 외향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정신적 가치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정신의 위험성 때문이다.

물론 현대 사회는 문화의 다원성과 국제성을 중요시하는 세계주의의 패러다임을 갖추어야 하지만[2], 세계화의 진정한 성취는 각 나라의 전통적 정체성이 주체적으로 세워지고 이들이 함께 독립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가능하다. 각 나라가 전통적 정체성을 세우고 이를 전수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기제와 문화유산, 방법론들이 매개된다.

이 같은 전통적 정체성을 전수할 수 있는 문화유산 중에서 아동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전래동화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전래동화는 현재를 거치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미래에도 함께 해야 할 우리의 문화이며[3], 선조들의 공동 참여로 인해 같고 다듬어졌으므로 우리 민족의 생활, 이상, 가치관, 정서를 담고 있고[4], 선조들의 힘과 슬기, 빛나는 지혜, 소박한 꿈이 융해되어 있다.[5] 또한 아동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해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유머를 포함하고 있으며[6],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를 사용하기에 아동에게 적합한 문학이 될 수 있다[7].

오늘날 전래동화는 어린 아동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림책으로 다수 출판되어 있다. 전래동화와 마찬가지로 전래동화 그림책 역시 아동들에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상상력을 제공하며 [8]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인물의 삶을 대리 경험하도록 하여 아동의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도울 수 있고[9], 글을 잘 모르는 아동에게도 공감할만한 세계를 제시하고 아동의 시선에서 세상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4]. 무엇보다 그림책은 그림과 글의 협동 과정을 통해 아동들의 눈높이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34][35] 아동의 가치관 형성이나 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0][36].

현 시대에 있어 더욱 전래동화 그림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 팽배와 정신적 가치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어린 시기부터 아동들이 아노미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래동화는 인성적 가치를 심어주기에 유익하며[1],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아동의 성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2]. 특히 한국의 전래동화들은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이항 대립적 구조 속에서 선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의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아동들의 가치관 및 인성 교육에 매우 유리한 교육적 효과를 제공한다.

전래동화를 분석한 연구는 많은 분량이 윤리적 측면에서 전래동화의 교육학적 수용을 고찰한 것들이다 [15-18].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인간형이나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2][19-21], 남북한 전래동화를 분석하여 남북한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거나[7], 그 외에 전래동화의 의미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 작업을 수행한 연구 등이 존재한다[3].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전래동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와해되어 가는 아동의 가치관과 인성 교육의 가능성을 전래동화 그림책의 특정 주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찾고자 시도하였다.

II. 인성교육과 가난

인성은 인격, 성품 등과 호환적인 개념으로 그 정의는 다양하다. 개성, 성격 등의 개인 심리적 특징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의 문화, 가치, 신념이 반영된 인간성, 도덕성, 사람됨 등이 강조되기도 한다[23]. 교육과학기술부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으로서 도덕성, 사회성, 감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인성을 정의하고 있다[24]. 이러한 인성의 구성요소는 도덕적 자각, 도덕적 가치인식, 양심, 선을 사랑하는 마음[25]과 도덕성, 영성[26] 등의 개인적인 차원, 정직, 준법정신, 효도, 봉사, 배려 등과[27] 타인에 대한 존중, 용서와 관용 등의

대인관계적 차원, 정의감, 민족애, 생명 존중[28] 등의 사회세계 차원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성 요소들을 기초로 전래동화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성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최근 바람직한 인성 개발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주요한 핵심 역량에 포함되었고[30] 한국인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 병리현상과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23]. 특히 공산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적 인간관의 팽배로 부(富)의 불균등한 분배와 빈부갈등에 무관심한 인간형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1] 위의 사회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현대인들의 무분별한 재화 욕망에 대한 계속적인 방치는 타인의 경제적 고통에 대해 전혀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인간형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자아마저 훼손하게 하고 다른 생명을 착취하는 현상까지도 목인하게 한다. 이러한 시대에 아동의 사회에서마저 가난으로 인한 자살, 빈부 격차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 따돌림 현상이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난과 재물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명백하며 앞서 인성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던 개인적 차원, 대인 관계적 차원, 사회세계 차원 모두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난과 재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의 인성, 해당 사회의 성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재화와 가난을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은 서구의 것과 동일하지 않다. 가난의 원인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문화마다 다양하다.

서양의 경우, 근대 자본주의가 대두되기 이전부터 재물 소유는 유일무이한 축복으로 인식되었다. 더구나 동양보다 다소 이른 자본주의 가치관의 출현 이후부터 인간은 세속의 이욕을 아낌없이 추구하며 욕망하고 소유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획득해 가는 존재이며 재화에 대한 개인의 무한한 욕망을 최대한 긍정하고 실현해가는 존재로 이해되어왔다[1].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욕망하는 고로 존재한다고 이해되었고 이러한 욕망이 충족될 때에야 비로소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구의 인간은 무욕

이나 절제된 욕망보다는 무한한 욕망을 절대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물 욕망은 타인들의 빈곤에 대한 무책임과 착취, 무관심의 만연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서양인들의 관점은 오늘날 동양에서도 익히 발견되는 재물관이지만 전통적인 문화를 조명한다면 보다 이질적인 민족적 특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동양의 재물관은 서양과는 종교적 배경부터 다르다. 정대련은 한국 전래동화에는 불교, 도교, 무속신앙 등의 전통적 종교관들이 얽혀 있으며 총체적으로는 인간존중사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7]. 모든 재물이나 물질, 사건들이 인간의 삶을 돕고 인간의 삶을 값지게 해주기 위하여 존재하지만 이러한 소재들은 인간에 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초점이 있다. 불교나 선(仙)사상의 무욕이나 무아는 오히려 욕망으로부터 자유와 해탈을 얻고자 하며 자본주의적 인간 이해와 그 충족 지향적 삶의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통적 사상들에 있어 재물 자체에 관한 시선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은 인간사의 재물과 빈곤에 대한 보다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다[1].

이 같은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더 명확히 드러난다. 갈브레이트(Galbraith)는 가난의 원인을 일반적 가난, 천민가의 존재 같은 집단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고립된 가난, 개인적 이유에서의 개별적 타진을 의미하는 특수 사례의 가난으로 구분하였다[12]. 슈리버(Shriver)는 국가나 지역 전체가 함께 겪는 집합적인 가난과, 전쟁 등에 의한 주기적인 가난, 개인적 사고로 인한 개별적 가난으로 분류하였다[13]. 정지웅은 제도적 모순 원인론과 동기 결여 원인론, 기회 결여 원인론, 자연이나 개인사고 원인론 등으로 구분하였다[14]. 김승룡은 한국 문학 속에서 가난의 의미를 경제적 결핍으로서의 가난, 상대적 불평등으로서의 가난, 삶을 관조하는 프리즘으로서의 가난으로 구분한 바 있다[22].

이처럼 가난에 관한 원인과 의미의 범주들에는 가난을 바라보는 자의 가치평가가 각각 반영되어있다. 빈곤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며 빈곤한 자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 문학에 반영될 경우,

이것은 그대로 주제 의식화되고 독자에게 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전수하게 된다. 이러한 문학 중 한 하위 장르인 전래동화는 특히 한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 집단적으로 소유해온 지혜와 민족적 가치관을 농축하고 있다. 전래동화들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적 친숙함과 민족적 가치가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동질적 메시지는 그 어느 문학 장르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전래동화는 내용상 권선징악, 초자연적 힘,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전형적 줄거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요소들은 각각 도덕적 가치의 표상과 근거를 상징하고 있어[32] 인성교육의 자료에 적합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학의 범주에서 전래동화의 주제 중 특히 가난이라고 하는 세부 소재를 인성교육의 가능성 안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없었다. 가난이라고 하는 소재는 전래동화의 매우 일반적 배경에 해당하며 또한 주제를 형성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난과 이에서 파생된 재물이라고 하는 소재는 선과 악의 가치에 매우 깊이 있게 개입하여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가 풍성하게 논의될 수 있다[11]. 이를 위하여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난을 주요 모티프로 다루고 있는 전래동화 그림책 속에 가난과 재물의 인성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목록,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추천도서목록, 국립아동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목록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전래동화 18편을 확보하였다.

전래동화는 그 성격상 구전 동화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차례 각색되었으므로 다양한 판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구전설화>와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바탕으로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으며 2003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한국교육산업

대상 수상도서, 소년한국일보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는 용기종기 출판사의 전래동화 시리즈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시리즈는 2014년 판으로 현재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도서들만을 다루므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용기종기 시리즈 전체 전래동화 그림책 72권과 위의 기관들의 추천도서목록에서 추천 18권 중 서로 중복된 도서들을 제외하고 총 82권을 1차 선정한 후, 그 중 가난과 재물을 모티프로 하는 전래동화 그림책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13권을 2차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전래동화들의 경우 서로 비슷한 구조와 내용을 가진 경우가 많아 이 중 초등 저학년 아동들이 많이 접하는 대표작들 위주로 분석대상을 추릴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알라딘, 교보문고, 예스24의 3개 인터넷 도서 쇼핑몰에서 아동 그림책 판매량 순위 전래동화 섹션 베스트셀러로 지정되어 있는 도서들 중 같은 내용을 다룬 도서, 각색 도서를 제외하고 상위 60위 안에 위치한 전래동화 제목들만을 추천 결과(2015년 5월 현재) 총 8권의 도서명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가난’이라는 상황과 인물의 성품, 그들 행위의 결과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가난과 재물을 둘러싼 욕망의 해결방식과 재물을 사이에 둔 인물들 간의 관계 등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작품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 중 주어진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자 간 토론을 통해 주인공의 어려움이 가난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유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된 1권의 책을 제외하고 총 7권의 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그림책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분석 대상 그림책

순번	도서명
1	흑부리 영감
2	금도끼 은도끼
3	요술 항아리
4	개와 고양이
5	효녀 심청
6	흥부와 놀부
7	콩쥐 팥쥐

2. 분석 방법

분석 단위는 전래동화 각 권으로 제한하였으며 글 텍스트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전래동화는 구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글 텍스트만의 개작을 거듭하게 되었으므로 글과 독립된 그림 자체나 각 단어, 문장과 같은 소단위 체계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와 주제 단위를 그 분석 단위로 하였다. 우선 연구자들은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추출된 가난의 종류에 대한 항목들과 그 정의를 바탕으로 [12-14][23] 원인에 따른 가난의 종류를 [표 2]와 같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 유목화 하였다.

표 2. 원인에 따른 가난의 종류

가난의 종류	내용
제도 혹은 시대에서 오는 일반적 가난	당시의 가난한 시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목이 있는 경우
개별적 사고로 인한 가난	천재지변이나 부모의 상실 등의 특수한 사고의 경우
동기나 노력 결여의 가난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게으름이나 부정적 성품으로 경제적 생활을 불이행한 경우
기회 결여의 가난	열심히는 일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맞이한 경우
상대적 빈곤감으로서의 가난	남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느껴지는 경우
안분지족으로서 누리는 가난	소박한 삶을 위하여 고의로 선택한 가난

그리고 이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여 아동문학 전공 교수 1인, 같은 전공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1인의 총 3인이 각 전래동화 그림책을 함께 읽고 합의의 과정을 통해 각 그림책의 가난의 원인별 종류를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 원인에 따른 도서별 가난의 종류

도서명	가난의 종류
흑부리 영감	안분지족으로서 누리는 가난
금도끼 은도끼	안분지족으로서 누리는 가난
요술 항아리	기회 결여의 가난
개와 고양이	안분지족으로서 누리는 가난
효녀 심청	개별적 사고로 인한 가난
흥부와 놀부	기회 결여의 가난
콩쥐 팥쥐	개별적 사고로 인한 가난

이들을 살펴보면 <흑부리 영감>, <금도끼 은도끼>, <개와 고양이>의 경우는 가난에 처한 이유가 분명하게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암시된, 주어진 삶의 조건에 대한 수용과 향유에 대

한 이해를 적용한 것이다. 소작농으로서 열심히 일하였으나 부를 축적할 기회를 맞지 못하였던 농부의 이야기 <요술 항아리>나 형에게 재산을 몰수당해 최소한의 생활 기초도 없이 삶을 시작해야 했던 <흥부와 놀부>는 기회 결여의 가난에 해당되었다. 또한 부모를 잃는 사고로 인한 가난도 나타났다.<콩쥐 팥쥐>, <효녀 심청>

이들 중 “제도 혹은 시대에서 오는 일반적 가난,” “상대적 빈곤감”은 단순화가 특징인 어린이 전래동화에서는 구체적으로 텍스트에 언급되지 않는 항목이었다. 또한 “동기나 노력 결여의 가난”과 같은 항목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래동화에서 주어진 삶의 조건으로서의 가난이 부정적인 가치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되었다. 즉, 자본주의 물질관에서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통한 사회 발전을 긍정하기 때문에 가난이 미화되어 묘사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본 분석 대상 전래동화들은 가난이 욕망 추구를 포기한 인간형들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자본주의형 물질관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에 앞서 전래동화 그림책들이 그려내고 있는 가난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본격적인 분석에서는 전래동화 그림책들을 함께 읽고 이들 그림책의 공통된 서사구조를 도출하였고 그 속에서 가난과 재물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적 역할과 의미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질적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해석학적 텍스트 분석이다. Hatch의 분석방법에 따라[31] 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 각자 개별적으로 전래동화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떤 원인과 기능으로 역할하는지에 대한 해석적 자료를 기록하였다. 이 기록을 토대로 공동으로 이를 검토하고 토의하여 연구결과에 제시할 핵심적 내용의 개요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자들 간의 해석이 지지되거나 도전 받는 부분을 의미화하면서 자료를 재해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 간의 토론을 거쳐 각 항목을 범주화하였고 구성된 초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림책 관련 전

문가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림책들이 아동의 인성교육 자료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 그 합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7권의 전래동화 그림책은 일관된 서사구조를 보였다. 이들은 발단에서 빈곤한 자의 선한 성품을 강조하였고, 전개에서는 이들에게 천운, 주로 신적 존재나 그들의 수하에서 봉사하는 동물들에 의하여 재물이 주어졌다. 이러한 재물은 이들의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것을 탈취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선인의 삶을 위에서 조망하는 어떤 영험한 존재에 의하여 재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선인과 이항대립을 이루는 악인은 선인의 갑작스러운 부의 획득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의 부의 획득이 어떤 고의적이고 전략적인 행위 때문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그 행위를 흉내 내거나 이를 탈취하였다. 그 결과, 그 누군가로부터 악인은 처벌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재산 몰수로 나타났다. 반대로 선인은 복을 받게 되는데 주로 부(富)의 보상을 누린다. 그러나 어떤 경우 선인은 악인을 용서하고 그 삶을 구제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표 3]에 제시하였고 이 구조에서 도출된 의미 요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글의 전개에 따른 서사 구조

단계	내용
발단	선한 성품을 가진 인물의 가난 ↓
전개	천운에 의한 부의 획득 ↓
위기	악인의 일시적 부의 획득 ↓
절정	악인의 처벌 ↓
결말	선인의 부의 보상, 악인의 구제

1.1 선한 성품과 가난의 밀접한 관계 [발단]

등장인물의 가난은 선한 성품과 관련이 깊었다. 예를 들어 <금도끼 은도끼>의 경우, “착하고 부지런한” 나무꾼은 “부지런히 나무를 해다 팔아 병든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다고 서술된다. 부지런함과 착함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행위에서 증명되며 이러한 그의 행위가 그로 하여금 가난한 삶을 살게 함을 암시하였다. 가난이 힘들지 않은 이유는 그가 부모님을 모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었다. “나무 한 짐 팔아서 울 어머니 고기 사고, 나무 두 짐 팔아서 울 아버지 새 신 사세.” 그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을 때도 걱정한 것은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이제 나무는 어찌하고 부모님은 어찌 모시나”였다. <콩쥐 팥쥐>의 경우에도 콩쥐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등진 뒤 콩쥐의 심성은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기술된다. “마음씨도 얼마나 고운대요.” 새어머니와 팥쥐의 구박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콩쥐는 “눈물만 흘렸”을 뿐 그 말에 토를 달거나 거부하지 않았다고 묘사된다. 양부모이더라도 순종하는 모습의 효녀로서 묘사되고 있으며 양아버지께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성품으로 인하여 더 혹독한 허드렛일에 처하게 된다. 위 두 작품에서 효성이라는 덕목은 주인공의 가난의 원인으로 암시되기도 하였고, 가난함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두 소재의 밀접한 관련성이 발견된다. <개와 고양이>의 할아버지 역시 어부지만 큰 잉어를 낚고도 마음이 약해 놓아주는 착한 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가난이 호인다운 선한 심성에서 온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착한 성품은 <홍부와 놀부>에서 더욱 강조된다. 첫 장면부터 “홍부는 마음이 곱고 착했지만 형 놀부는 욕심쟁이에다가 얼굴 가득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고 묘사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려는 부모의 말을 거역한 채 놀부는 홍부의 재산을 가로채었고 홍부는 이러한 부당함을 수용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기술된다.

<혹부리 영감>과 <효녀 심청>, <요술 항아리>와 같은 전래동화의 경우는 가난하게 된 원인과 착한 성품에 대한 관계를 인과관계로 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

도적으로 가난한 주인공의 선한 성품을 강조하면서 - “칭이는 허드렛일이나 샴바느질을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아버지를 잘 봉양했어. 동네 사람들은 그런 칭이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지.”(효녀 심청), “동네 아이들이 흑부리 영감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놀러댔지만 사람 좋은 할아버지는 허허 웃기만 했지.”(흑부리 영감) - 그가 처한 가난을 부정적인 가치나 게으름의 결과로서 제시하지 않고 삶에 주어진 긍정적인 조건으로 이해하게 하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주인공의 선한 성품을 돋보이도록 가난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가난을 다루는 전래동화의 대부분은 가난이 주인공 인물의 선한 성품을 증명해주거나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난이 개인적인 게으름이나 부정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전래동화 속 가난은 선한 성품과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고 긍정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분석 대상 그림책에서 가난함의 원인이 되거나 가난과 관련 깊은 주인공 인물의 성품으로는 효(<콩쥐 팥쥐>, <효녀 심청>), 작은 동물도 불쌍히 여김(<홍부와 놀부>, <개와 고양이>), 우애(<홍부와 놀부>), 정직(<금도끼 은도끼>), 무욕(안분지족)(<흑부리 영감>) 등으로 오늘날 인성 교육의 유용한 덕목들이다.

1.2 신적인 조력자로부터의 재물 획득 [전개]

이들 전래동화들은 가난한 선인들이 신적인 조력자, 주로 그들의 수하에서 봉사하는 동물 조력자들로부터 우연히 재물을 획득하는 과정을 환상적으로 그린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재물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 결코 재물을 축적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자발적 노력으로 성취되지 않았으며, 개연성 있는 사건들의 단계를 밟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재물 획득은 매우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주어졌다.

<흑부리 영감>의 경우는 우연히 빈집에 들러 노래를 부르다가 도깨비라는 초인적 존재를 만나 흑을 떼었을 뿐 아니라 재물까지 얻게 되는 이야기이다. <요술 항아리>는 한 소작농이 성실하게 타인의 밭을 갈아 부를 축

적하는 듯 했으나 사기꾼에게 속아서 전재산을 들여 사들인 돌밭에서 또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연찮게 발견한 요술 항아리에서 부의 단서인 팽이를 발견하면서 재물 획득이 시작된다.

특별히 주인공 인물의 선한 동기가 시험되거나 강조되고 이들의 행위가 신비한 방식으로 부를 불러들인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금도끼 은도끼>의 경우 나무꾼이 우연찮게 연못에 빠뜨린 도끼에 산신령이 나타나 그의 정직을 시험하고 재물을 부여하는 서사를 보인다. <개와 고양이>는 자신이 잡은 잉어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었더니 이 잉어가 다음날 용왕의 아들로 출현하여 은혜를 갚는 서사이다. 이처럼 한낱 동물에게 베푼 인정과 공훈이 복을 불러들인다는 서사는 <홍부와 놀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외에도 <효녀 심청>과 <콩쥐 팥쥐>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순종이 부를 불러온 것으로 묘사되었다. 각각 두꺼비와 용왕 및 연꽃이 조력자가 되었다. 따라서 가난뿐 아니라 이들의 재물 획득의 방식 역시 이들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도록 형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각 서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신적인 조력자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그들로부터 주어진 부(富)가 주인공의 확실하게 선한 성품을 시험한 후 등장한 것이든, 우연하게 등장한 것이든 용왕이나 산신령, 도깨비 등과 같은 인간사를 꿰뚫어 보는 영험한 존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지거나 그러한 존재의 심부름꾼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신적인 조력자로부터의 재물 부여는 악인과 선인의 이항대립 속에, 악인이 아니라 선인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갖게 되는데 재물에 대한 욕망함과 쟁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성품과 행동을 관찰하는 신적 조력자에 의하여 일방적이고도 우연적으로 주어짐에 따라 주인공 인물들의 욕심 없는 선한 성품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1.3 악한 성품의 증거로서의 재물 욕망 [위기]

선인의 재물 획득 이후 악인의 재물 탈취 및 탐욕적 모방은 전래동화의 보편적인 구조이다. <혹부리 영감>의 경우, 주인공 영감이 우연히 재물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마을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배가 아파 착한 혹부리 영감의 이야기를 따라 그대로 흉내 내 보지만 오히려 도깨비로부터 처벌을 받을 뿐이다. 두 영감의 행위는 표면적으로 동일하지만 악인은 오직 그 동기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묘사된다. <금도끼 은도끼>의 경우도 “욕심쟁이 나무꾼”이 선인의 대척점에 등장한다. 착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같은 장소에서 도끼질을 하는 척 하다가 일부러 연못 쪽으로 도끼를 던지고서는 횡재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내 악한 동기가 드러나고 산신령에게 처벌받는다.

이러한 구조는 요술 항아리 소문을 듣고 속여 판 돌밭의 소유를 도리어 주장하기 시작한 부자나(<요술 항아리>), 요술 구슬 소문을 듣고 구슬을 바꿔치기 한 이웃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개와 고양이>) 흥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놀부,(<흥부와 놀부>) 돈을 갈취하여 도망간 뽕떡어멈(<효녀 심청>)에게서도 발견되는 동일한 서사 구조라 할 수 있다.

악인들의 재물욕은 선한 주인공과 이항대립의 위치에 존재하면서 선인의 성품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주로 재물 혹은 재물과 관련된 위치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바로 이 탐욕이 그들이 악인인 증거로 제시된다. 악인 대부분은 선인의 재물 획득을 시기하여 이들의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고자 하나 그 악한 동기가 드러나 종국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선한 행위를 장려하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다.

1.4 성품에 기초한 처벌과 보상, 용서와 구제

[절정, 결말]

대부분의 가난 모티프를 가진 전래동화에서는 각 인물이 가진 성품에 기초하여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다. 악인은 부의 탈취로 일시적 부의 획득을 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개와 고양이>, <효녀 심청> 등) 대부분 악한 성품을 대가로 종국에 처벌을 받았고 선인에게

로 재물이 돌아오는 것이 결말로 제시되었다. 두 집단 모두가 동시에 재물을 획득하는 경우는 없었다. 권선징악 주제에 기초한 두 개인의 대립은 이항 대립적 위치에서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구도였으며 승자가 재물을 취하였다. 다시 말하여 선인과 악인은 재물의 귀결로서 바람직한 성품의 손을 들어줬으며 선한 성품이 보상받음으로써 곧 승자가 되었다.

따라서 전래동화에 있어 가난이 긍정적인 가치로 그려졌다 하더라도 가난 자체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선인에게 재물의 획득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획일화된 결말구조를 두고 본다면 가난보다는 재물을 더욱 긍정적인 가치로 그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물 자체에 인간세상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제시하기보다 재물을 추구하는 인간의 잘못된 욕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전래동화를 인성 교육의 자료로서 활용하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한 이해이다. 결국 가난을 다루고 있는 전래동화들은 재물과 가난 자체를 다루면서도 성품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한 성품의 강조는 선인이 승자가 되어 재물을 누리면서도 자신을 괴롭히던 새언니와 새엄마를 용서하거나(<콩쥐와 팥쥐>), 욕심쟁이 형님을 용서하여 재물을 나누거나(<흥부와 놀부>), 자신이 획득한 요술 항아리를 독점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후일담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요술 항아리>)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난과 재물을 모티프로 하는 전래동화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현 시대의 인성 교육적 가능성을 찾고 그 교육적 함축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 2인은 가난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는 전래동화 그림책 7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 서사구조를 살피고 그 공통된 서사구조 속에서 가난과 재물의 문학적 역할을 도출한 후 이러한 그림책의 인성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인성 교육적 함의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인공 인물들의 가난을 주요 배경으로 시작하

는 전래동화에서는 주인공의 가난이 개인적인 계층과 같은 부정적인 성품과 관련이 없었고 주로 선한 성품과 관련되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형성했다. 이때 선한 성품이란 효, 동물 사랑, 우애, 정직, 무욕 등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가난이 개인의 부정적 성품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오히려 선한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물질 소유가 삶의 태도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없음을 인지시켜 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래동화에 구현된 가난은 개별 사고로부터 불시에 닥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가족 부양의 책임을 감당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소박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얻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따른다면 자신이 처한 가난이나 타인의 가난에 대하여 그릇되게 판단하여 자학하거나 무시, 혹은 불행하다고 여기는 등의 극단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방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없어져 가고 있는 전통적 덕목들인 효, 우애, 긍휼, 욕심 없음 등의 선한 성품을 장려할 수 있다.

둘째로, 신적인 조력자나 동물 조력자들의 도움이 비현실적 방식으로 선인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인의 선한 성품이 시험되거나 어떤 우연히 발생한 착한 행위의 대가로서 재물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삶의 조건으로 주어진 가난이 그들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었듯이 재물 부여 역시 선한 성품을 강조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선한 주인공이 재물을 불의한 동기로 탐하거나 이를 획득할 목적으로 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처럼 불시에 비현실적인 조력자로부터 임한 재물은 선한 주인공의 성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더 신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강조해 보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 전래동화의 서사는 가난과 재물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이 소재들을 선한 심성과 관련시켜 보여주고 재물은 노력에 의해서 뿐 아니라 착한 심성에 대한 하늘의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이해는 아동 독자로 하여금 재물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삶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가난은 부끄럽거나 변화 불가능한 고정된 조건이 아니

며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재물의 소유가 개인 자신에게만 있지 않고 개인의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를 통찰하는 절대자의 위치에 귀속되어 있다는 이해를 전달함으로써 선한 양심에 기초한 선한 행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셋째, 선인에 뒤이어 악인들의 악한 성품이 부각되는데 주로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그 증거가 나타난다. 악인 대부분은 선인의 재물 획득을 시기하여 이들의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재물을 몰래 가로채지만 그 숨겨진 동기와 악행의 전모가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된다. 악인의 역할은 선인과의 이항대립 구조 때문에 권선징악의 교훈을 뚜렷이 드러나게 한다. 이는 선과 악의 대립되는 개념을 통해 최대한 명확한 도덕적 개념의 인식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전래동화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2].

이처럼 선인과 악인을 대비시키는 전래동화의 구조는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을 가르치기에 매우 효과적인 대립 형이다. 탐욕과 시기, 부정적 등은 악인의 성품으로 규정되고 욕심 없음, 긍휼, 용서 등은 선한 성품으로 규정되어 이들이 서로 확실한 대비를 이루도록 돕는다. 이는 또한 탐욕에서 비롯된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며 표면적 행위 뒤의 동기의 중요성을 전달해준다. 요행이나 대가를 바라는 모방의 행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위야말로 진정한 인성일 수 있음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로 인하여 악인의 행위에 대한 극단적 조치가 폭력성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상과 벌의 강한 강도 때문에 악인의 뉘우침 등의 변화가 매우 간결하게 묘사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이 있어 인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33]. 따라서 추후로는 아동의 경험적 반응의 탐색을 통해 실제 교육적 상황에서 어떤 인성적 효과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사례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대부분의 가난 모티프를 가진 전래동화는 각 인물이 가진 성품에 기초하여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았다. 그러한 보상이 재물로 주어지고 처벌은 재산 몰수로 나타남에 따라 재물 소유 자체가 부정적 가치

아니며 축복임을 드러냈다. 다시 말하여 지나친 재물 욕망은 악한 성품으로 드러나 처벌을 받으나 재물 소유 자체는 신령한 존재로부터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신령한 존재의 개입은 판타지 동화가 가지는 하나의 문학적 특질이지만 전래동화의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조명한다면, 이 같은 초자연적 힘의 절대적 지원은 아동들에게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선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옛이야기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재확인이라 할 수 있다[32]. 이러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 가난을 모티프로 한 전래동화는 아동들에게 재물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공공의 소유로서의 재물의 가치, 재물의 진정한 소유권 등을 인식하여 이를 감사하며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래동화는 가난과 재물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해준다. 가난이 착한 심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재물 획득 역시 착한 심성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난한 삶이 언제까지나 고정적인 삶의 조건일 수 없으며 재물의 축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균형 잡힌 재물관을 나타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같은 가난과 재물의 관계 사이에는 효, 우애, 자족 등의 선한 성품 즉, 오늘날 잃어져 가고 있는 귀중한 가치들이 매개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난을 모티프로 하는 전래동화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인성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래동화의 인성 교육적 가치는 실제 아동의 반응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재확인되어야 함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참 고 문 헌

- [1] 허원기, “홍부전의 인성론적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Vol.19, pp.163-189, 2006.
- [2] 양옥승, “새 천년을 위한 한국 유아교육의 방향,” 영유아교육학회, 제23회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연구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2000.
- [3] 한선아, *한국 전래동화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4] 김선희, 지은주, 조희숙, “전래동화 그림책에 나타난 미래지향적인 아이상 탐색,” 어린이미디어연구, Vol.9, No.1, pp.259-281, 2010.
- [5] 정대련, “전래동화에 나타난 삶의 교육적 의미,” 교육학연구, Vol.30, No.4, pp.273-283, 1992.
- [6] J. A. Smith and D. M. Park, *Word Music and Word Magic*,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7
- [7] 오영은, *남북한 전래동화의 내용분석: 생태학적 체계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8] 마쓰이 다다시, *어린이와 그림책*, 이상금(역), 서울: 샘터, 1996.
- [9] 김주희,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10] 김영주,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11] 김창현, “홍부전의 주제와 현대적 의미: 근대 극복을 위한 문학연구 방법론 모색 시고,” 비교문학, Vol.41, pp.279-308, 2007.
- [12] J. K. Galbraith, *The Affluent Society*, Boston: Houghton Mifflin, 1958.
- [13] S. Shiver, *Poverty*, The Encyclopedia Americana, 1965.
- [14] 정지웅, “가난의 문체와 교육에의 도전,” 교육학연구, Vol.7, No.2, pp.29-43, 1969.
- [15] 김경중, “전래동화의 현대적 수용방안,” 한국아동문학연구, Vol.4, No.1, pp.35-50, 1995.
- [16] 김미환, “전래동화의 인간학적 진술과 교육학적 의미 고찰 - 전래동화의 교육인간학,” 교육철학, Vol.17, pp.129-146, 1997.
- [17] 정대련, *한국 전래동화의 윤리학적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18] 윤금아, *유아교육용 전래동화의 가치관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9] 정대련, “전래동화에 나타난 인간상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Vol.20, pp.37-63, 1998.
- [20] 한대규, *아이 주인공 전래동화 연구: 한국 전래동화에 나오는 아이상과 교육적 활용 방안*, 춘천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1] 김경철, 채미영,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아동관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Vol.6, No.3, pp.208-218, 2001.

[22] 김승룡, “고려후기 한시의 가난에 대한 시선들,” 고전과 해석, Vol.9, pp.62-88, 2010.

[23] 도승이, “행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사고개발, Vol.9, No.2, pp.143-159, 2013.

[24] 교육과학기술부, *인성교육비전보고서(안)*, 2012.

[25] T. Lickona, *Education for Character*, New York: Bantam Books, 1991.

[26]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손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Vol.30, pp.1-38, 2008.

[27] 조연순, 김아영, 임현식, 신동주, 조아미, 김인정, “정의교육과 인성교육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1,” 교육과학연구, Vol.28, No.1, pp.131-152, 1998.

[28] 조난심, 문용린, 이명준, 김현수, 김현지, 이우용, *인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4-14, 2004.

[30]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창의 인성교육 기본방안*, 2010.

[31] J. A. Hatch,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al Settings*, (진영은 역) *교육 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 서울: 학지사, 2008.

[32] 장정호, “한국 전래동화의 교육학적 이해: 옛이야기의 교육적 기능과 의의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Vol.23-2, pp.133-156, 2013.

[33] 김병건, *전래동화의 윤리미학적 내용분석과 유아들의 윤리미학적 요소에 관한 미적 경험*, 경북대학교, 이학박사학위논문, 2015.

[34] 유동관, “어린이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형식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10, 2011.

[35] 강은진, “모 윌렘스의 그림책에 나타난 유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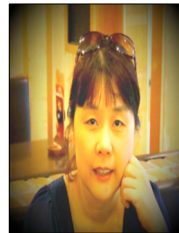
pp.374-384, 2014.

[36] 이란 현은자, “EBS 라디오 어른을 위한 동화 프로그램의 그림책 콘텐츠 및 청취자를 위한 전략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0, pp.315-329, 2014.

저 자 소 개

이 란(Ran Lee)

정회원



- 1994년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문학사)
 - 2003년 : Univ. of Edinburgh (교육학 석사)
 - 2014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아동문학 콘텐츠, 아동미디어 콘텐츠

현 은 자(Eunjia Hyun)

정회원



- 1982년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문학사)
 - 1984년 : Eastern Michigan Univ.(문학석사)
 - 1988년 : Univ. of Michigan(교육학박사)
- 1989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문학교육, 아동미디어리터러시, HR(Human-Robot Interaction)

이 현 정(Hyunjung Lee)

준회원



- 2015년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문학사)
- 2015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그림책, 아동 청소년 문학, 아동 청소년 미디어 교육